투데이 칼럼

영화의 글로벌화, 디지털화 준비해야

이호규
남예종 연기예술과 교수

우리가 사는 세계와 그 세계 속의 영화적 공간과 트렌드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한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는 온라인과 해외 배급을 통해 수십만 리 떨어진 외국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한·중 합작, 한·할리우드 합작 등 글로벌 제작시스템이 보편화하는 중이다.

지난해 12월 시각특수효과(VFX) 제작 전문 기업 덱스터가 코스닥시장에 등록했다.

'미녀는 괴로워'(2006), '국가대표'(2009) 등을 연출한 김용화 감독은 2012년 신작으로 '미스터 고'라는 한중 합작 영화를 만들게 됐다.

그런데 주인공은 고릴라. 실제 고릴라에게 연기를 시킬 수 없으니 결국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야 했다. 특히 털과 표정·움직임 등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선 수준 높은 시각 효과 기술이 필요했다. 미국 회사에 의뢰하려고 하니 300억 원이 필요했다.

김 감독은 생각을 바꿨다. 직접 한국에서 VFX를 제작해 기술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거대한 중국 시장에 도전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덱스터는 이렇게 탄생했다.

덱스터는 영화 속 고릴라를 125억 원에 만드는 데 성공했다.

2013년 7월 개봉한 '미스터 고'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VFX 기술과 노하우는 남았다.

그 결과 많은 한국 영화제작사는 할리우드가 아닌 국내 글로벌 제작 시스템에 안심하고 의뢰하는 단계까지 올라섰다.

실제 덱스터는 '해적'(2014) '서부전선' 등 국내 영화의 VFX를 담당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 회사는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로 고난도 영상을 구현하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국 영화 시장에서 사업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적인걸2'(2013) '몽키킹'(2014) '타이거 마운틴'(2015) 등 중국 영화의 VFX를 해냈다. 중국 내 VFX 시장은 지속해서 확대해 2017년 북미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전망이어서 덱스터의 장래는 더욱 밝다.

VFX뿐만 아니다. 지난 4년간 중국 영화시장 성장률은 연평균 40.4%에 달한다. 현재 중국 영화 시장은 2013년 기준 연간 637편이 제작됐으며, 273편이 극장에서 상영됐다. 극장 수는 3200여 개, 스크린 수는 2만여 개로 한국보다 9배가량 큰 시장이다.

과거 무협사극이 중국 관객에게 사랑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판타지, 로맨틱 코미디, 스릴러, SF,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많은 한국 영화 제작자에게 기회의 땅이 틀림없다.

이처럼 영화 산업이 내수시장에 안주하는 시대는 끝났다. 모두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영화계가 보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장 큰 성과는 한중 공동 투자와 합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사실이다. 한중 FTA를 통해 엔터 분야에서 한국회사가 49% 지분설립이 가능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생겨 훨씬 더 자유로운 합작 사업이 가능해졌다.

중국과 '미스터고'를 함께 했던 쇼박스 미디어플렉스가 중국 1위 민영 영화제작사인 화이브라더스와 손잡고 쇼박스차이나를 설립, 3년간 6편 이상 한중합작 영화를 제작해 5조원 규모의 중국 영화시장 공략에 나선 것은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전략이다. 앞으로 이런 합작 영화 기업들은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며, 국내의 좁은 영화시장을 넘어 중국을 거쳐 아시아 전역으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발판은 마련됐다. 이제 한국 영화계는 글로벌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 초대형 합작 프로젝트를 연결해 창조적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영화 시장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소비패턴을 고려한 플랫폼 다양화 등 진취적인 사업으로 급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영화인들은 글로벌화한 현재 상황에 발 빠르게 적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으로 주 소비계층으로 떠오른 중국과 아시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독자제언

설명절 졸음운전 교통사고 줄이자

가족친지가 한 자리에 모이는 민족대명절 설 연휴가 며칠 뒤면 시작이 된다. 고속도로의 귀성길 정체와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은 졸음운전이다.

고향에 가서 가족들 만날 생각에 설레면서도 막상 꽉 만힌 도로에 들어서면 졸음부터 쏟아지게 된다.

졸음운전은 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만취 상태의 음주 운전과 다를 바 없다.

이렇듯 위험성이 높은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창문을 열어 차량 내부의 공기를 환기 시켜주고

둘째, 그래도 피로감이 느껴지면 즉시 안전한 졸음 쉼터나 도로폭이 넓은 안전한 곳에서 잠시 수면을 취하여야 되며

셋째, 차량내에 졸음방지 패치 또는 껌등을 활용하고

넷째, 동승자가 운전을 할 줄 알면 교대로 운전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장시간 운전은 피로감을 더하기 때문에 2시간 운전시 잠시 휴게소등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경직되었던 상.하체 몸을 스트레칭으로 풀어준다. 차량의 문을 다 닫은채로 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차량 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두통이 발생하면서 졸음운전이 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차량내의 공기를 순환시켜 주고 운전 중에는 같은 자세로 집중을 하게 되는 경우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면서 순환이 잘 안돼 졸음운전이 될 수 있다.

이때에는 주변 졸음 쉼터나 휴게소 등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조금함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면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훨씬 줄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박진희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설 명절 자위방범으로 빈집털이 예방을

온 가족이 모여 같은 공간에서 행복을 느낄수 있는 우리 민족의 명절 인 설(구정)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은 정든 고향으로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즐거운 명절은 또한 명절 기간 빈집털이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든 고향으로 갈 계획을 짜는 것도 좋지만, 떠나기에 앞서 '빈집관리' 계획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찰에서는 절도 발생 취약지역 등에 지속적인 방범순찰등 맞춤형 범죄예방을 전개하고 있지만, 한정된 경찰력 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예방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빈집털이 절도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문 등에 견고한 방범창등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열리면 작동하는 경보장치(비상벨)를 설치 하고TV.라디오 예약기능 활용하기, 집 전화기는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 집안에 모형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주민 스스로도 적극적인 자위방범구축 등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적인 절도 피해를 당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마 내가 그러한 범죄를 당하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절도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어느 누군가가 계속 피해를 보고 있으며 언젠가는 나 자신도 그러한 피해를 당할수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자위방범 구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절도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재산적 손실도 크지만 그보다 정신적 피해가 훨씬 클 것이다.

아파트의 경우는 경비실에 꼭 연락해 감시를 요청하고 또한 관할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실시한 '빈집 사전 예약순찰제'를 적극 활용하고, 보석등 귀중품도 보관 의뢰해 도난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번 명절은 빈집털이 절도 피해 없는 즐겁고 안전한 설명절를 보내길 바래본다.

배봉규 완산서서학파출소 팀장

사 설

설 대목 전북의 희망 만들기

설날이 코앞인 단대목이다. 설날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설 연휴를 생각하면 평일은 금요일까지 사흘 뿐이다. 그래서 이 지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도민의 도민을 위한 희망 만들기가 계속 돼야겠다. 지난 연말부터 희망 만들기 작업이 있었던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다른데 관심이 팔려 희망 만들기가 멈칫거려선 안 된다. 얼마 전에 사랑의 온도탑의 열기가 식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다시 뜨겁게 불을 지펴야겠다.

전북 지역에 희망 만들기 작업이 꾸준해야할 이유는 많다. 희망 만들기는 덕담 차원을 넘어야 한다. 가난한 서민들과 영세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지역의 분위기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이때, 희망 만들기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가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진취적인 기상으로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 희망 만들기는 살림살이가 넉넉한 이들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함께 나누려는 정신태도는 행복을 배가 시킨다. 그런 점에서 주위의 따뜻한 이웃들은 지역의 미래를 밝게 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에 충분하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도내의 뜻있는 이들은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나섰다. 고지대에 사는 독거노인을 위해서 공무원과 학생들이 길게 늘어서서 연탄을 배달해주고, 여성단체 회원들이 소년 가장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한 것이 그 고마운 예들이다. 사실이지 우리 전북 지역의 인심은 후덕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다른 광역시도보다 살기가 빠듯함에도 이웃돕기에 인색하게 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설 대목의 희망 만들기에는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빠져도 되는 것이 아니다. '노송동 천사의 15년 개근'의 꾸준한 선행을 본받아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우리 전북 지역이 웰빙 고장이 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설대목에 입춘이 있고 설 연휴가 지나면 곧바로 우수이고 경칩이 그 다음이다. 봄이 멀지 않은 지금, 우리 전북 도민의 희망 만들기가 따뜻한 훈기를 냈으면 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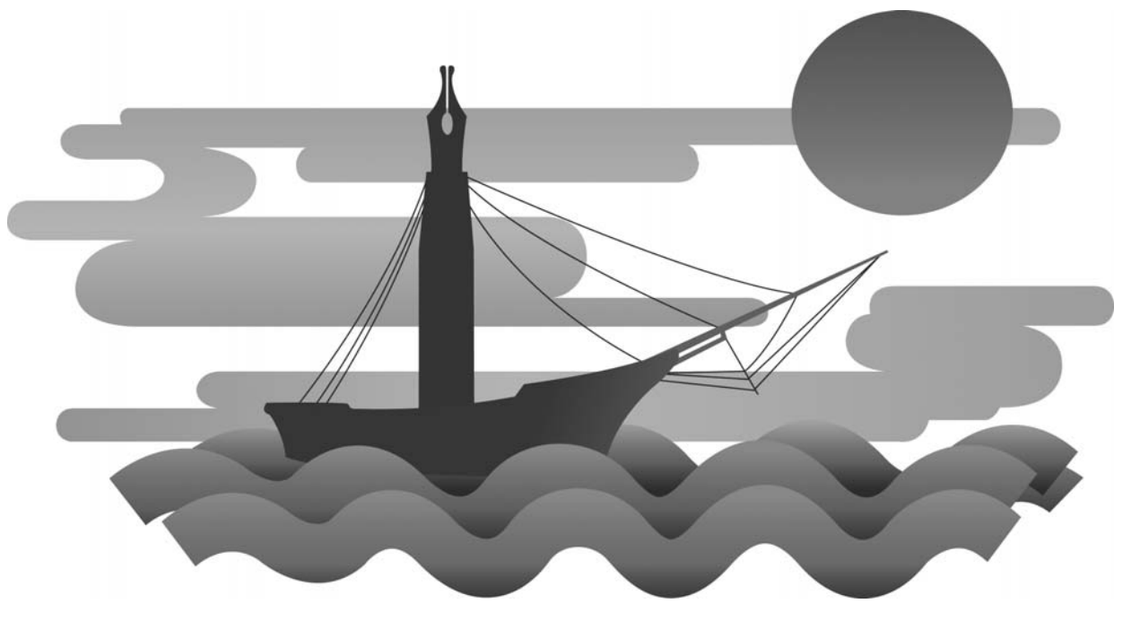
군산항과 중국 수출길 오른 전북 쌀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매진하는 모습이 아쉬운 때이다. 어떤 이의 말대로 지금 이대로는 고장의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 공무원 중에 견해가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돌아가는 흐름을 보아야 한다. 발전의 보폭이라는 게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 미미하다. 미래를 밝게 볼 수 없는 근거를 들자면 하나 둘이 아니다. 지역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면 전북도는 비상한 각오가 다져야 한다.

다른 지역의 발전 보폭에 비하여 이쪽의 발전 보폭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니와 현실에 안주해선 안 된다. 현재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모습이 아쉬운데 특히 군산이 그러하다. 군산시는 지금쯤 대도시가 돼 있어야 맞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초라할 뿐이다. 시로 승격된 역사가 오래임에도 다른 항구도시보다 낙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가슴 아픈 일이다. 군산항의 물동량이 거의 매년 제 자리라니 낙후라도 이런 낙후가 없다. 전북의 유일한 무역항으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군산 쪽에서 날아온 소식은 근래에 드문 희소식이다. 군산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있은 '대중국 쌀 첫 수출 기념식' 말이다. 대중국 쌀 수출은 그 의미가 보통 큰 게 아니다. 우리 전북 지역의 쌀이 우수함을 중국이 알아준 것으로 해석이 된다. 상해에 있는 69개 대형 마트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라니 말이다. 그 특별한 행사의 자리에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송하진 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컨테이너 선적 점화 퍼포먼스를 가졌는데 군산항의 미래를 위해서도 전북 쌀의 상품 가치를 위해서도 기분 좋은 행사였다는 생각이다.

이제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 지역의 미래를 견인하고 있는 사업들과 관련해 군산항의 현주소가 어디쯤에 있는지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크고 작은 많은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 이번의 대중국 전북 쌀 수출도 그 중의 하나라는 판단이다. 군산항을 활성화시키려면 새로운 항만이 필요하다는 말이 오래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적극 추진할 일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